

# 전주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

###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선포식'서 인증패 받아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 한·중·일 3국의 문화예술 교류를 이끌게 됐다.

시는 지난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린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및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선포식'에서 중국 메이저우시와 청두시, 일본 시즈오카현과 함께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인증패를 받았다.

중국 취푸시 주최로 진행된 행사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서울 행사장에 참석했으며, 후허핑 중국 문화관광부장과 메이저우시 청두시 시장, 스에마츠 신스케 일본 문부과학대신과 시즈오카현지사 등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포함된 4개 도시 단체장은 각국 문화장관으로부터 동아시아문화도시 인증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주시는 지난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린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및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선포식'에서 중국 메이저우시와 청두시, 일본 시즈오카현과 함께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인증패를 받았다.

각국 및 도시간 협력을 다짐했다. 따라 매년 3개국씩이 각각 선정한 동아시아 문화도시간 문화예술 협력과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 문화 다양성을 존

중하고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행사다.

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공식 선포된 만큼 올해 1단계로 추진 전담팀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내년 공식행사인 개·폐막식을 비롯해 전주국제영화제·세계종이문화축제·전주세계소리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와 연계한 동아시아 문화도시간 연계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전주만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중·일의 문화적 다양성을 공유하며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하겠다"면서 "함께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한중일 4개 도시가 문화를 매개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전진기지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 대표 관광지 한 번에 즐겨요”

### 전주시, 군산·익산·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등 인접 관광자원 활용한 여행상품 'mymy travel' 출시

전주시가 도내 7개 시·군과 손잡고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전주시는 올해 군산시·익산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과 공동으로 시·군 연계 여행상품인 '2022 mymy travel'을 출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mymy travel'은 관광거점도시 전주시의 시·군 연계 여행상품 브랜드다. 시는 지난해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선보여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관광객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여행상품은 전주와 주변 시·군을 연계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지역 축제와 문화, 음식, 카페와 같은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게 특징이다.

먼저 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여행의 경우 무주 반딧불 축제와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 페스타 등 관광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지역 축제를 힐링·체험 프로그램과 결합했다. 관광객이 전주 여행에 그치지 않고 주변 시·군에서 하루 더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

을 뒀다.

개별여행을 즐기는 MZ세대가 선호하는 뷰 맛집, 로컬 맛집을 결합한 여행상품도 선보인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출시하는 단체 및 개별 여행상품을 관광객들이 전주한옥마을에서 서비스와 품질을 인증 받은 전통한옥에 머물며 전주만의 멋스러움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내 대형 소셜커머스의 티몬과 함께하는 마케팅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영상으로 소통하는 최근의 관광 상품을 선보여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관광객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여행상품은 전주와 주변 시·군을 연계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지역 축제와 문화, 음식, 카페와 같은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게 특징이다.

먼저 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여행의 경우 무주 반딧불 축제와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 페스타 등 관광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지역 축제를 힐링·체험 프로그램과 결합했다. 관광객이 전주 여행에 그치지 않고 주변 시·군에서 하루 더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

을 뒀다.

개별여행을 즐기는 MZ세대가 선호하는 뷰 맛집, 로컬 맛집을 결합한 여행상품도 선보인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출시하는 단체 및 개별 여행상품을 관광객들이 전주한옥마을에서 서비스와 품질을 인증 받은 전통한옥에 머물며 전주만의 멋스러움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내 대형 소셜커머스의 티몬과 함께하는 마케팅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영상으로 소통하는 최근의 관광 상품을 선보여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관광객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여행상품은 전주와 주변 시·군을 연계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지역 축제와 문화, 음식, 카페와 같은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게 특징이다.

먼저 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여행의 경우 무주 반딧불 축제와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 페스타 등 관광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지역 축제를 힐링·체험 프로그램과 결합했다. 관광객이 전주 여행에 그치지 않고 주변 시·군에서 하루 더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

을 뒀다.

개별여행을 즐기는 MZ세대가 선호하는 뷰 맛집, 로컬 맛집을 결합한 여행상품도 선보인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출시하는 단체 및 개별 여행상품을 관광객들이 전주한옥마을에서 서비스와 품질을 인증 받은 전통한옥에 머물며 전주만의 멋스러움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내 대형 소셜커머스의 티몬과 함께하는 마케팅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영상으로 소통하는 최근의 관광 상품을 선보여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관광객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여행상품은 전주와 주변 시·군을 연계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지역 축제와 문화, 음식, 카페와 같은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게 특징이다.

먼저 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여행의 경우 무주 반딧불 축제와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 페스타 등 관광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지역 축제를 힐링·체험 프로그램과 결합했다. 관광객이 전주 여행에 그치지 않고 주변 시·군에서 하루 더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

##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어 주세요” 우전초 학생 편지에 개선 약속

### 전주시 완산구, 부서 합동회의·현장 점검 진행...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키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달라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통학로 개선에 소매를 기울였다.

지난 26일 완산구에 따르면 이날 초 김병수 구청장 앞으로 우전초등학교 5학년 학생자치회가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학교 인근 우전2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하굣길 교통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효자동 호암주택을 거치는 이면도로 인도 내 불법주정차 등으로 학생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



이는 내용이었다.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어달라는 게 구청장에게 편지를 쓴 학생들의 요구사항이었다.

이에 완산구는 구청장 주재로 이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부서 관계자들은 현장을 방문해 직접 통학로를 걸어보며 불편사항을 점검했다.

구는 하굣길의 교통안내 부재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스톱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을 신청해 2학기에 교통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인도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호암주택 앞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

해서는 내년부터 도로개설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습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건의한 우전초 5학년 학생자치회에 감사의 뜻과 함께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 약속을 담은 답장을 보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환경개선과 불법행위 단속을 집중 추진하겠다”면서 “학생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소통 창구 마련 및 현장행정 강화 등 열린 구정을 적극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위문품 전달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지난 26일 사회복지시설인 전주은혜마을에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번 행사는 소방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시설에 필요한 세탁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배달서비스로 전달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 10월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전주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난 2008년에 시작된 법정조사이자 질병관리청과 전국 17개 시·도, 256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시는 전북대학교와 협력해 전주시 표본가구의원인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

다.

조사 항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행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이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삶의 질 △손씻기 실천 등 19개 영역의 138개 문항이다. 지난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신체계측(신장·체중·혈압)은 한시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대신 코로나19 관련 문항이 조사항목에 포함됐다.

/김재훈 기자

### 전주자봉센터,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희망열차 봉사

#### 돌봄 노인 200세대에 밀반찬 전달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희망열차 봉사활동이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자봉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지난 26일 센터 이웃사촌방에서 행복밥상 푸드봉사단(회장 안영순), 전북교육포럼(회장 박정귀), 뷰티플러스봉사단(회장 진미영), 행복드림봉사단(회장 문성현) 소속 봉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산물로 만든 계절 김치 등 4가지 밀반찬을 만들어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하는 '425회차 사랑의 희망열차 봉사활동'을 했다.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밀반찬은 생활지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치고 불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돌봄 노인 2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센터는 환경보호를 위해 사랑의 희망열차 봉사활동을 할 때 반찬봉은 친



환경제품을 사용하고 포장용지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달하기로 했다.

센터는 2003년 자정면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0년 동안 이어온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봉사활동을 통해 노인들에게 전문봉사 활동은 물론이고 문화공연과 점심 나눔 활동까지 해왔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도시락 배달 및 계절 김치 나눔으로 대체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주시 11개 권역 노인 맞춤형 돌봄 대상자를 선정해 생활지도사를 통해 나눔 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